

2016년 5월 12일



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는..  
서울로 공부를 하겠다고 기차를 타고 등교한다.  
좋아하는 할리스 커피가 5000~6000원 사이였던 것 같은데..  
실업자 되고나서는 6300원하는 기차표도 비싸다고 생각한다.  
어떻게 5~6천원 하는 커피를 마시고 다녔단 말인가..?  
아니지, 마실수도 있지.., 맛있게 먹었잖아. 그럼 된거야.  
이런 사소한 것에 점점 집착하게 되는 나는 진정한 실업자인건  
가..? 아니면.., 그냥 아줌마..??